

대구·경북



단체장 일정



윤경희 청송군수는 2024년 20일 오후 군청 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송군-경북북부도도소지방상수도용수공급협약식'에 참석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일 오후 석보면 화매권역센터에서 개최되는 치매보듬마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4·10 총선... 구린내 풀풀나는 불법선거 판친다

대구·경북서 줄줄이 선거법 위반 검·경 고발 잇따라 진흥당 선거...

4·10 총선이 벌써부터 불법선거가 판친다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치면서 선관위로부터 경찰과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공명선거는 뒷전이고 오직 유권자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심사다.

안동선관위는 지난 18일 안동시에천군 선거구에서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11명을 경북경찰청

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선관위는 지난 15일 김천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해당 신문의 발행·편집인으로서 2월 27일, 특정 입후보예정자 B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해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

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선관위는 지난 13일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C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이로서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 소속 직원 등 55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D씨와 공모자 E씨

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포항에서는 1월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자를 고발했다.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자료를 공표한 언론인과 보도된 선거여론

조사의 결과분석자료를 조작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와 지지지도도 고발했다.

상주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40권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등 5명이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도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단법인의 사무총장을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경북 2월 수출 급감 이차전지 소재 수출부진 영향

대구·경북의 주력수출품인 이차전지 소재의 수출부진으로 지역의 2월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2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8%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전면 대구는 25% 감소한 7억 6000만 달러, 경북은 14.7% 감소한 29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국 지지체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수입 또한 전국적으로 13.1% 감소했다.

대구 40.3% 줄어든 4억 달러, 경북은 25.9% 감소한 1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동월 대비 대외 교역액은 대구 31.2%, 경북 18.4%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주요한 원인은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소재의 수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출이 크게 증가한 탓에 올해는 역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대구와 경북 주력수출품인 이차전지 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의 수출실적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우 높은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올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전년동월 대비 대구 61.2%, 경북 34.8%의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다.

실제 2023년까지는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힘입어 전기자동차(EV) 시장이 확대, 자동차 배터리 소재 수출도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각국의 보조금 축소, 얼리어답터의 초기 구매 수요 완결로 인한 대가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자 배터리팩 생산량도 맞춰 조정되면서 관련 후방산업인 이차전지 소재 수출이 감소했다.

이같은 수출부진에도 신성장산업의 수출은 약간전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주요국의 신성장산업 투자로 이차전지 제조용 장비(업연기) +86.2%, 화학 기계 +10.6% 수출이 호조세다.

AI 가속기용 인쇄회로(15.9%) 및 인플러스트(의료용기기, +134.0%)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경북 수출은 AI 탑재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로 무선전화기(+60.0%)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태블릿 등 IT 신제품 출시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전방수요 증가로 평판디스플레이(+14.6%)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대경본부 이근화 차장은 "전기차 판매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이차전지 소재 수출은 작년과 같이 급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글로벌 탄소중립의 기조는 유효하며, 이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이라는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장은 "무협대경본부는 오는 6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 대구·경북 공동관을 구성하는 등 이들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칠곡경찰서, 대교초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계몽운동

칠곡경찰서는 19일 석적읍 소재 대교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칠곡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계몽운동을 했다. (사진-칠곡경찰서 제공)

경북도, 농업 6차 산업 농촌 변화 이끈다

농업대전환, 농촌 저출생 종식 청년 창업 농업 모델 제시...

경북도가 '농업 6차 산업 및 청년 농업인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1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는데 청년 농업인, 6차 산업 준비 경영체와 농업 특성화고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 농업인과 영농 종사자들이 기존 농업·농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1차 농업과 2, 3차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농촌에서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사

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인구소멸,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한 20인(6차 산업 인증 경영체, 청년 농업인)의 우수 사례를 담은 사례집 배포와 관련 제품 등을 전시했다.

우수 사례발표는 이우락(농부플러스 대표, 안동 맹개마을에서 우리 밀로 만든 진맥소주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박성호 농업회사법인(주) 밀과노닐대표)가 맡았다.

발표자들은 귀농 준비에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농촌생활 적응기, 농산물 생

산 및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피나는 연구, 농촌 환경에서 우연히 얻게 된 착상,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 등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알렸다.

사례 발표 외에도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 제도 소개와 컨설팅 희망 경영체 15명을 대상으로 식품제조 가공·설비, 온라인 홍보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분야 등 1:1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농업경영체와 창업의 이해를 도왔다.

덤 행사로 진행된 우수사례 경영체 20인의 제품 전시관 및 사진전에서는 도라지 농사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공제품이 선

보였다.

살구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1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사례,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사과 노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사례 등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는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인증 경영체를 현재 281곳에서 2028년까지 400곳으로 확대한다.

6차 농업 핵심주체인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한 '경북 디지털 청년 농업인 육성 중장기 계획'을 마련, 2026년까지 청년 농업인 5000명(2022년 말 현재 2,580명)을 집중 육성, 미래 농업을 준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앞으로도 농업 6차 산업인증사업자와 청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예천군 소속 양궁 김제덕 육상 최동휘 국가대표 됐다

직장운동경기부 양궁육상 국가대표배출 영예 겹경사

예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양궁과 육상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하면서 겹경사를 맞았다.

주인공은 예천군청 소속 양궁 리커브 김제덕 선수와 육상 10종 경기 최동휘 선수다.

도쿄올림픽 2관왕 김제덕 선수는 지난 9~14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4년도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예천군청 김제덕(사진좌)·최동휘 선수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국가대표의 영예를 안았다.

김제덕 선수는 평생 한번 하기도 어렵다는 양궁 종목에서 4년 연속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1, 2차 평가전을 거쳐 최종 3위 이내로 통과하면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육상 10종 경기 종목의 최동휘 선수는 지난 3월 11일부터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2cm, 87kg의 빼어난 체격의 소유자로 육상계의 철인이라 불리며 운동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노력형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

2022년부터 국내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로 현재로는 메달권에 들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안권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제덕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개인전과 남자 단체전, 그리고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을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동휘 선수는 차근차근 준비해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김제덕 선수와 최동휘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길 응원하며 앞으로 한국 양궁과 육상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도태우 무소속 출마 국힘 공천취소 반발

논란 차단 시도한 여권 남감 무소속 출마에 야 공세 지속



국민의힘이 '막말' 공천 취소 반발에 휩싸였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변호사·54)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도 후보는 19일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10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중구와 남구 주민들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깃발을 사수하겠다"며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수의 심장으로 되살리는 일에

앞장하겠다"고 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천위는 5·18 폄훼 논란의 중심에 선 도 변호사에 대한 '공천 유지' 결론을 뒤집고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다.

5·18 폄훼 발언에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거리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가 높은 발언이 추가로 나와, 전체 총선 판세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된 대구 중·남구에서는 김기웅 전 통일부차관이 공천받았다.

공천취소로 논란 차단을 시도한 여권은 난감한 모습이다. 이들이 본선에 나설 경우 야권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지지층 분열에 대한 걱정도 있다. 다만 대구는 여권 텃밭이라는 점에서 지지층 분열로 인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무소속 출마로 인한 지지층 분열 우려도 제기된다. 도태우 후보는 지역 주민과 당원을 상대로 진행된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어 적지 않은 지지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보수층 조직력 장악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도 변호사를 지지한 전통적 지지층이 김기웅 전 차관 쪽으로 옮겨갈지, 아니면 도 변호사를 계속 지지할지가 선거 결과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국민추천제에 밀린 류성걸 불출마 선언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결정"

국민의힘 대구 동·군위군갑 현역 재선 국회의원이지만 제22대 총선 공천에서 당이 추진한 국민추천제에 의해 공천이 배제된 류성걸 의원이 19일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천 탈락이 확정됐던 지난 15일 이후 줄곧 무소속 출마설이 흘러나왔던 류 의원은 국민추천제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총선 승리의 대의를 위해 불출마를 결정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는 타자를 치고, 1개는 직접 쓴 두 개의 안을 지금도 가슴에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 자회견 직전까지 불출마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

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군위갑에 국민추천제를 통해 최은석 전 제일제철대 대표 이사를 공천했다고 발표했다. 양극희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북구갑에도 우재준 변호사를 공천했다.

또한 대구 중·남구에서 예선과 결선 등 2차례의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됐던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5.18 폄훼 논란과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 등을 이유로 공천 취소하고 김기웅 전 통일부차관을 전략적으로 공천했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과 세대교체,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도입했다는 '국민공천제'를 두고 전통적인 지지 텃밭인 대구에서 국민공천제가 낙하산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미경 기자

홍준표 "이준석 역전 어렵다"...1위에 23%P 뒤져

"근거없는 비방, 정치 잘못 배워"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권의 젊은 피라는 이준석(39) 개혁신당 대표, 장예찬(36)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앞날을 어렵게 전망했다.

홍 시장은 19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을 첫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공영우 후보(46.2%)·이 대표(23.1%)·국민의힘 한정민 후보(20.1%)의 순을 보인 것과 관련해 "역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5선 의원, 경남지사, 대선후보 등 숱한 선거를 치렀던 홍 시장은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첫 조사에서 두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소 이준석 대표를 아꼈던 홍 시장이 어두운 전망을 함에 따라 이 대표 측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한편 홍 시장은 자신이 여권 주류와 각을 세울 때마다 비난을 퍼부었던 장애인 전 최고가 부산수영구 공천취소 결정에 반발, 무소속 출마를 선

언한 것에 대해선 "나를 경유없이 헐뜯던 사람들 이번에 많이 낙선했다. 앞으로 낙선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장전 최고도 그런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비방하는 건 정치를 잘못 배운 탓, 못된 버릇부터 배운 탓"이라고 장전 최고를 비판한 뒤 "국민들은 현명하게 잘 못된 심성으로 정치하면 결국 벌받는다"며 장전 최고가 과거 SNS 발언에 대해 사숙해하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된다'고 고개 쳐들면 결국 매를 맞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가 23.1%를 기록한 경기 화성을 여론조사는 인천일보, 경인방송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한걸리서치가 지난 15일-16일 화성을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래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 방식(ARS)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6.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다. 조여은 기자



대구 여야 후보들, 장애인 정책공약 협약 동참

4·10 총선에 출마하는 대구지역 여야 후보들이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정책공약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19일 대구지역 2024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이 단체가 제안한 장애인 정책공약 협약에 참여한 후보는 황승구 진보당 후보(동구·군위군을), 최영오 진보당 후보(달서구),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수성구갑), 강대식 국민의힘 후보(동구·군위군을) 등 4명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정책의 변화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총선 대응 정책기구로, 총선에 출마하는 대구 모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조미경 기자

국힘 지역구 후보 10명 중 2명 법조인 '율사대전'

행정관료 13%·언론 10% 정당인 출신 29%로 최다 음주운전 처벌 전과 22명

4·10 총선에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출마할 254명의 지역구 후보 중 법률가 출신이 4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보는 20명이 넘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발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예비후보자 명부를 반영해 후보 이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254명 중 49명(19%)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의 출신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직업은 당협위원장·국회 보좌

관과 같은 정당인 출신이다.

정당인 출신 74명(29%)이 국민의힘 본선 후보로 확정돼 이번 총선에 나선다.

행정고시 등을 통해 입직한 행정관료 출신은 33명이다.

이들은 전체의 13%로, 직업 분류상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후보 중 기자나 앵커와 같은 언론인 출신은 25명(10%)이었으며 교수·연구원 등 학계 출신이 16명(6%)으로 집계됐다.

법조인의 정계 진출은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 발간한 '국회와 주요국회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조계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은 15%에 해당하는 46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출마자는 117명이었는데, 당선율이 39%에 달한 셈이다.

법조인 출신의 출마리수가 이어지는 이유는 국회 입법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는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하는 주진우 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등 검찰 출신 용산 참모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후보는 22명(9%)이다.

이번 분석에서 후보 직업은 고시·입사를 포함해 개인의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대중 인지도가 높은 주요 이력이 중복할 경우 주요 이력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조여은 기자

오준호 "불공정 선거제 편승 말고 토론하자"

이인선 의원에 방송토론 제안

오준호 새진보연합 대구 수성구를 후보(48)는 지난 18일 4·10 총선 대구수성구를 지역구에서 현행 선거법상 유일한 선거방송 토론회 초청 대상인 현역 이인선 의원(수성구)에게 선거 토론을 제안했다.

새진보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야3당 단일후보인 오 후보는 이날 중구 상서동 대구 YMCA 청소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수성구를 후보간 선거방송의 경우 토론 초청 대상이 이 의원뿐이라 나머지 후보들은 토론 없이 연설만 하게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이 동의

만 한다면 토론할 수 있으니,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고 품격 있는 토론으로 수성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들 앞에서 누가 진정한 지역 일꾼인지 겨뤄보자"며 "독립운동가의 자손을 자랑하는 이 의원이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는 선거제도에 편승하지 말고 당당히 토론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송 토론회 초청 대상자는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

필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해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등으로, 대구수성구를 지역구에 현행 선거법을 적용하면 토론회에 초청되는 후보자는 이 의원이 유일하다.

호 예비후보는 이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큰 실수하지 않고 나름 수성구 지역에 대한 소신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확자 출신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또 기본사회·녹색도시·혁신도시 등 3대 비전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재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8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가장 최악의 선거...국민들이 가엾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는 투표하러 갈 맛 안나네요”라며 서이 같은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짜잡아 비난하면서 “선거는 국민적 축제인데 역대 선거 중 가장 최악의 선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쪽은 무자비하게 반대파만 잘라내는

뻔뻔한 공천을 하고 한쪽은 정제불명 공천을 하면서 무조건 찍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3지대는 정제성을 상실하고 맥도 추지 못하니 국민들이 선택하기 참 난감할 것”이라며 “그래도 차악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장에 가야하는 국민들이 가엾다”고 밝혔다.

美 디지털 헬스케어기업 엘비스, 대구에 연구센터 구축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지역 종합병원과 연구·실증 추진

대구시는 19일 산격청사에서 엘비스와 수성알파시티 내에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엘비스는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국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창업자가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팔로알토)에 설립한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뇌전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소프트웨어 '뉴로매치(NeuroMatch)'를 개발해 작년 미국 식약처(FDA) 및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치료 방식은 뇌질환 치료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엘비스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수성알파시티 내 870㎡(263평) 부지에 175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뇌전증과 수면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엘비스는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대구 시내 종합병원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 실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엘비스의 이번 투자로 수성알파시티가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치료 등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스톱투자지원단을 가동해 엘비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중구청, 결핵예방의 날 맞이 결핵예방 캠페인

내일 오후 2시 달성공원에서

대구 중구청은 제14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결핵예방주간(3월 18일~24일)인 21일 오후 2시 달성공원(달성공원로 35)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 1위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중구 노인복지관, 중구노인시니어클럽,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기침예절 준수 등 결핵예방수칙을 안내하고, 결핵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결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결핵 퀴즈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 보건소에서는 2주 이상 기침이 반복되거나 급격한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무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결핵 확진 시에는 치료상담과 접촉자검진은 물론 사례상담 및 취약성평가를 실시해 맞춤형 결핵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노인, 노숙인 등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연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2,289명의 취약계층이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조미경 기자

달창지 벚꽃축제 준비 완료...유가읍 자연보호협 자연정화활동

축제 22일부터 24일까지

달성군 자연의 보고 달창지에 오는 22일부터 제11회 달창지길 벚꽃축제가 열린다.

유가읍 자연보호협회는 달창지길 벚꽃축제를 앞두고 한정리 일대에서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동참

해 상춘객들에게 아름다운 벚꽃길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쳤다.

오중수 자연보호협의회장은 “유가읍 환경보호를 위해 매년 봉사활동에 앞장서서 임해주시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꾸준한 정화활동으로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유가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 손계영 유가읍장은 “이번 아침부터 자발적으로 자연정화활동에 참석해 주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분들에 감사드리며, 제11회 달창지길 벚꽃축제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회 달창지길 벚꽃 축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정리보건진료소 일대에서 3일간 개최된다.

조여은 기자

TK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 본궤도 안착

LH·산은 등 참여 SPC 구성 오늘 업무협약 체결식 가져

대구시는 오는 20일 산격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대 양여사업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완료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21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등 8대 금융기관과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2대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과 5대 메이저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그리고 지역 대표은행인 대구은행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조달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편 대구시는 잇따른 업무협약에 이어 3월 25

일(월)에는 민간참여 공모를 공고하는 등 사업을 본격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본 사업에 대한 LH 등 공공기관과 국내 주력은행과의 상호협력에 담보됨에 따라 대구시는 향후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s)와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s),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s) 등 민간부분의 적극적 참여와 조속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대 공공기관과 8대 금융기관이 참여해 조속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일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대구 미래 50년의 영광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구청, 2024년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 실시

전문기관 코칭 국비 확보 총력

대구 동구청은 지난 14일부터 양일간 선제적 공모사업 대응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해 '2024년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정부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 및 주요 공모사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의 정책기획 능력 및 공모사업 추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정부예산 및 부처별 주요 공모사업, 동구청 공모사업 대응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동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점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동구청은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44건, 약 147억 원의 국·시비를 따냈으며 이번 워크숍을 바탕으로 지난해 이상의 성과를 목표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2024년 중앙정부의 건전 재정 운용 기조와 세수부족으로 그 어느 해보다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동구의 발전과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경북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 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자가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남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한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강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재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야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경북교육청, '수학 여행비' 지원한다...올해 148억원 투입

경북교육청이 지난해보다 33억여원이 늘어난 148억여원을 올해 수학 여행비로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초등학교생 14만원, 중학생 18만원, 고

등학생 25만원 이내의 수학여행 비용을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에 대한 추가 수학여행비 지원 승인을 받아 이듬해 학생들

에게 올해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내 전체 고등학생 중 90% 정도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학여행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주민 간 갈등 사전 차단 안간힘

투명공정한 주민공동체 지원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 나서

경산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에 나섰다. 읍면동의 마을 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규약은 마을 상조 규약이나 동계(洞契), 1995년 제정된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왔다. 마을개발과 공동사업 운영, 각종 사업 등으로 공동재산이 늘면서 주민회의 영역이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약 자체가 없거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이주민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규약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마을 내 각종 사업추진, 공동재산 활용,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주민 간 갈등도 증가 추세다. 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 등 주민대표, 변호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18일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한차례의 실무회의를 더 거쳐 표준규약의 틀을 만든 후, 읍면동의 주민대표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했다. 마을회의 가입자격, 입회비, 주민 대상의 무규정, 마을총회 운영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종 반영 후 표준규약을 완성한다. 이·통장 선출은 특정 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통장을 뽑는 주민총회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거 절차나 방식을 표준화해 이·통장 선출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완성된 표준규약과 이·통장 선출 및 회계 절차, 각종 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들을 하반기부터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마을 특성에 맞게 수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한다. 조현일 시장은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 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준규약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표준규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경은 기자

경북개발공사, 고객만족·경영·청렴도 전국 첫 3관왕



경북도개발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인 환영 행사. (사진=경북개발공사 제공)

창립 이래 획득한 최고점수 만족하는 경북 대표 공기업

경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1.68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창립 이래 획득한 최고 점수다. 한 해에 고객만족도 1위, 경영평가 1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모두 달성하는 3관왕을 차지한 것은 전국 15개 지방공사 중에서 경북도개발공사

가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383곳의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의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협력업체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해서 서비스 환경, 과정, 결과와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5가지 분야의 만족도 평가한다. 공사는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0.3점으로 2위를 달성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년도 결과분석과 이에 따른 중점 개선 사항을 도출 △SNS 홍보 및 운영 확대 △지역주민과의 소통간담회 확대 △임대아파트 주민 대상 토크 콘

서트 △시설물 임차인 대상 동절기 시설물 점검 등 끊임없는 고객 중심 경영을 추진해왔다. 이재혁 경북도개발공사 사장은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 전국 1위는 공사를 경험한 고객이 직접 평가해 준 뜻깊은 결과이자, 도민들께 공사의 고객 중심 경영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고생해 준 공사 전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이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경북의 대표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농업통계 자료 한 손에! '경북 농업주요지표 발간'

경북농기원, 농업인들의 삶 풍요로워지는 방안 찾는다



경북농업기술원이 '경북의 농업주요지표'를 발간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매년 변화하는 경북농업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농가소득은 높이고, 농업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지도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업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핸드북 형태의 1000부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관련 기관에 배부한다. '경북의 농업주요지표'에는 농가인구, 농가소득, 농업생산액 등 관련 기관에서 공표한 통계자료와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농산물소득 자료 △농업노동시간 △농업노동 및 토지임차료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돼 있다. 2022년 경북 주요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르면 10a당 소득이 전국대비 높은 품목으로는 시설시금치(186.1%), 봄감자(176.3%), 오미자(123.6%), 노지포도(121.1%)이다. 낮은 품목은 배추(고랭지, 29.6%), 당귀(24.8%) 등이다.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시설딸기(834시간), 시설오이(축성, 726시간)가 많았고, 복숭아(157시간), 사과(153시간) 등은 적게 투입됐다. 농업노임은 1일 기준 남자 15만 978원, 여자 13만 5581원으로 2015년 대비 각각 39.3%, 86.5% 증가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경북교육청 늘봄선도학교 행정력 총동원

도교육청, 늘봄선도학교 180개교 확대 운영 매진 시교육청, 지역도서관 연계 찾아가는 늘봄학교 운영

대구·경북교육청이 늘봄선도학교에 행정력을 모은다. 대구교육청은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도서관과 힘 모으고, 경북교육청은 늘봄선도학교 추가 공모로 180교로 확대 운영한다.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지역도서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적자원을 활용, 지역도서관과 함께 초1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2·28기남학생도서관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등 10개 지역도서관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 △그림책으로 배우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그림책으로 마음 읽기 △영어그림책 토크리딩 △꿈자락 꿈자락 문화예술놀이 등 초등학생들의 흥미와 발달을 반영한 53개 강좌를 마련했다. 도서관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로 강사가 직접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학기에는 23개 늘봄학교에서 1,115명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 2학기에도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한다. 대구교육청은 늘봄학교에 다양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도서관을 시작으로 지역대학, 지자체,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물적 교육자원을 활용, 늘봄학교를 지원해 나간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추가 공모를 통해 1학기 늘봄선도학교를 180교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경북교육청은 신학기 전 늘봄선도학교에 배치한 152명의 기간제 교사 외에 기간제 교사 예비 인력 28명을 더 확보하고 있었다. 가용 가능 인력의 활용을 위해 개학 후 추가 공모를 진행, 28교의 늘봄선도학교를 추가 선정했다. 도내 전체 초등학교 468교 중 38.5%에 해당한다. 울릉지역을 포함한 22개 도내 모든 지역에서 늘봄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됐다. 추가 선정된 28교의 늘봄선도학교 기간제 교사 배치와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확보를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는 채용 업무를 지원한다. 학교는 기간제 교사와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채용 즉시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은 추가 선정된 28교의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위한 집중 점검을 3월 말까지 완료한다. 인력과 공간 확보 현황, 수요조사,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방문을 통해 꼼꼼히 건설링한다. 황태용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반려동물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하세요

경주시가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한달간 무료접종을 한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핏줄 상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

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연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시민이 키우고 있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백신접종 부작용 등 기타사항에 동의한 보호자에 한해 접종이 진행된다. 규모는 백신 500마리 분이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경주시청 축산정책과 동물보호팀(054-760-2883)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경주시, 시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뜻 올려

4월22일 지구의 날 실천 선도 도시 선포식 개최

경주시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새달 22일 제54회 지구의 날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가진다. 선포식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동점과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최첨단 미래 도시 '경주의 이미지'는 물론 전환

경 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목표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여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자는 범지구적 의제다. 시는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심포지엄'은 탄소 흡수원 확충, 탄소중립 상시교육, 시민실천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같은 해 12월 '제13회 경주시민원탁회'는 7

개 그룹 100여 명이 참여해 연령·계층·직업별 세부 실천 방안이 도출됐다. △매장 실내온도 지키기(소상공인) △TV 사용시간 줄이기(시니어) △밤 보온시간 줄이기(다문화가정)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실시(전업주부)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구성(환경단체) △겨울철 휴경기 풋거름작물 재배(농업인)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교육인) 등의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이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방안 도출에 힘입어 경주시는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41억원) △경주 그린뉴

딜 천년숲길 조성(66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93억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60억원) 등 확대 실천방안을 내놨다. 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장·운영 △2026년 경주시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만간 수립된다. 시는 탄소중립 실천에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시민 실천운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심포지엄'과 '시민원탁회'를 통해서도 출한 '탄소중립 실천 리스트' 1만부를 배포해 시

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늘린다. 탄소중립 서약서와 실천리스트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면서 시민 대상 실천방법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실천의지를 보다 확고히 한다. 민관산학 주도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면서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후위기 속에 탄소중립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 시민들도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실천해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자"고 강조했다.



경주시 홍보담당관 직원, 홍보자문위원회, SNS알리미 등 40명이 18일 황리단길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친절 계몽운동 후 기념촬영 했다.

홍보직원들 거리로 나간 이유? APEC 정상회의 유치 이벤트

경주 홍보 전문가들,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손님맞이 친절 계몽운동... 경주시 홍보과 직원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홍보담당관 직원, 홍보자문위원회, SNS알리미와 함께 지난 18일 황리단길 일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친절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은 APEC 정상회의의 유치가 걸맞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40명의 참석자들은 '당신의 미소가 경주의 얼굴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과 어깨띠를 두르고 지역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에서 관광객과 상가 직원들에게 리플릿을 나눠주며

유치 당위성을 알렸다. 친절, 청결, 신용, 안전 등 관광진화 4대 실천과제를 홍보,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없는 친절하고 깨끗한 손님맞이 분위기 조성도 확산시켰다. 이날은 경주시 공식 유튜브(와썹경주) 촬영을 위해 APEC 경주유치 기원 테드리프트 챌린지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을 오가는 방문객들이 자신이 들 수 있는 무게를 제시해 도전 성공 시 2025kg를 채우는 이벤트로 현장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했다. 조현우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친절 캠페인, 기초질서 지키기 등 선진시민 의식 캠페인을 홍보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토지소유자 경계분쟁 해소...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경주시는 2021년도 사업지구인 건천천포2지구에 대한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의결을 위해 지난 18일 시청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정된 심의·의결 대상은 건천지구 조정금이

의신청 34건 41필지로 60일간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안전으로 상정하게 됐다. 위원들은 실제 이용현황과 주변 환경,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정 평가한 후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징수·지급을 완료한다. 건천읍 천포리 일대를 기준으로 실시한 천포2지

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21년 사업을 시작해 2023년 6월 최종 572필지로 경계가 확정됐다.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 의뢰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합치 해소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택배서비스 개시

경주시는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택배서비스를 올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조호물품 택배 서비스는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로 제공되는 조호물품은 기저귀 및 물티슈 2가지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

으로 진행된다. 조호물품 지원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1년이며, 택배서비스는 한번에 4개월분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년마다 관련 서류제출시 지원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운용한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Advertisement for the 2025 APEC summit in Gyeongju. It features the Gyeongju logo, the text '2025년 APEC 정상회의', and a large calligraphic slogan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We hope for Gyeongju to be selected). The background shows a traditional Korean palace at night.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청송군, 건강증진 일감 호응

청송군이 마련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막 내렸다.

청송군보건요원 방문보건팀은 현동면 월매리, 파천면 용점리, 주왕산면 좌라리 경로당을(3개소) 중심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의사가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에게 1:1 건강상담과 침시술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완화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주 생활터인 경로당을 찾아 1:1 건강상담과 침시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쇼핑몰 영덕장터 봄맞이 행사

온라인 쇼핑몰 영덕장터(ydmall.cyso.co.kr)가 20~31일까지 전품목 10% 할인행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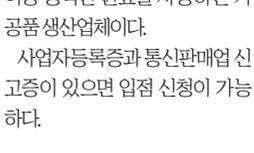
영덕장터에는 현재 58개 업체가 163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영덕군의 품질 좋은 제철 농산물, 특산물, 가공 상품들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영덕장터는 1월 설맞이 행사, 2월 영덕대축제 개최기념 행사를 했다. 매달 다양한 행사로 판매 시장조사를 강화, 소비자 혜택을 늘린다.

영덕장터 참여를 희망하는 입점 농가도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

입점자격은 영덕군 농축수산물, 농식품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과 주재료 50% 이상 영덕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품 생산업체이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으면 입점 신청이 가능하다.



영양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영양군은 19일 영양전통시장 일대에서 결핵예방 계몽운동을 했다. 오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임과 동시에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이다.

계몽운동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바른 기침예절 등 결핵예방 수칙, 결핵예방의 중요성과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24 경북도민행복대학
청도군 캠퍼스 개강식

청도군이 2024 경북도민행복대학 청도군 캠퍼스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은 지난 18일 청도군 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 내빈 및 수강생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저하지 않고 배움을 시작하는 분들은 평생교육이라는 시대정신을 읽어 내고 삶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 찾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성공의 삶이며 기적의 삶이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민행복대학 사업은 올해 4년차다.

차별화된 성인학습대학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 청도군민 맞춤형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행복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해 경북도민행복대학 청도군 캠퍼스는 90%가 넘는 높은 출석률로 4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2024 신입생 모집에도 신청자가 많아 또한



청도군은 지난 18일 청도군 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내빈 및 수강생 50여 명이 참석, 2024 경북도민행복대학 청도군 캠퍼스 개강식을 가진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번 청도군민의 배움의 열정을 실감했다. 명예학위과정은 1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주 1회 2시간, 연간 30주 수업(상·하반기 각

15회)이 진행된다. 교육과정으로는 공통과정(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50%와 특화과정(인문학,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50%로 총 7개 영역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군민 학습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영덕군은 19~4월 8일까지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2024. 1. 1 기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필지는 영덕군 지역 전체 14만 5951필지로 국·공유지 3만 1,620필지와 사유지 11만 4,331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새달 8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m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토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2024년 1월 1일 기준)는 4월 30일 결정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공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054-7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울진군 수소도시 건설... 행정력 총동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제도적 기반 마련 총력

울진군이 수소도시를 건설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지난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탓이다.

군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원자력이다. 수소 생산을 위한 필수 요소인 전기, 원자력 전기는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무탄소 전기일 뿐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생산단가도 낮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군은 세계 최대인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된 원자력 전기를 수소 생산에 활용하게 되면 가장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교통여건이나 인적 인프라 공급이 어려운 울진군이 많은 경쟁상태를 제치고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원자력전이라는 울진군의 경쟁력이 한몫했다.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울진 원자력수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국가산단 운영을 통한 미래 수소도시로 향하는 길이 한층 가

워졌다. 최근 울진군은 신규 국가산단 법정부추진지원단 회의 시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입지는 청정수소 대량생산에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강화에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미래 수소도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청송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교육

청송군이 청송시니어클럽주관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교육을 한다.

교육은 18~26일까지 기간 중 7일 간이다. 각 읍·면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참여 어르신 4087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직무, 소양 및 안전 수칙 등의 무료교육을 한다.

군은 올해 총 162억원의 예산으로 청송시니어클럽을 통해 어르신 4,087명에게 노인일자리 제공을 한다.

전년 대비 536명의 참여 인원을 확대했다.

군은 더 많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울릉도, 관광지 근로자 친절·안전교육

관광객 맞이 준비 만전

실습... 현실감 만족 높아

울릉군은 18,19일 이틀간 주요 관광지의 근로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관광객 응대 시 친절 및 응급상황 대비 안전교육을 했다.

교육은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대비, 근로자들이 관광지 운영에 있어 친절과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강사가 한 시간가량 친절교육을 했다. 강의 시작 전 노래로 분위기를 환기시켜 수강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본격적으로 대인 관계 기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교육했다.

안전교육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 평소 알고 있던 내용도 쉽게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이날 현지 소방관의 지도하에 근로자 전원이 응급상황 대응과 심폐소생술 등의 실습을 직접 실시하여 유사시 망설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실제적인 교육을 했다.

수강을 마친 근로자들은 "실습을 해보니 현실감이 있어 좋았다. 자신감이 생겼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관광객 한분 한분을 친절로써 대해 울릉군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안전한 울릉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 관광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유용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윤환 기자

오도창 영양군수, "산불 막아라" 특명

산불 제로 총력 추진

산불예방 선제적 대응

영양군 산불예방에 총력전이다.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개조 33명, 읍면 산불감시원 78명을 선발했다.

산불없는 영양군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불은 주로 2~5월 중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한 불씨가 산으로 번지며 발생하는 만큼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영양군 산림녹지과는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에는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다.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대응으로 과태료를 물게한다.



밝혔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수시로 관내 산불위험지역을 예찰 중이며 산불계도와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께서 항상 조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산과 숲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20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관내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일 오전 김정환홍삼본사에서 열리는 LA-벤쿠버 농특산물 판촉행사 수출품 선적식에 참석한다.



박현국 봉화군은 20일 오전 봉화정자무화생 활관에서 열리는 '농업인단체 한마음 품년기원제'에 참석한다.



의성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영남제일병원 현장 방문

의성군은 지난 15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의)영제의료재단 영남제일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영남제일병원은 의료진과 행정인력 40명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지역거점의료기관이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이날 김주수 의성군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의료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 청년동아리 활동비 동아리별 최대 90만 원 지원

영주시는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적극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1차 심사하고, 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 동아리에 동아리별 최대 9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9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우편(pb967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4-639-6153)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 2025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총력'



영천시가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목표를 1887억 원으로 잡고 예산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19일 최기문 시장의 주재로 국·소장과 전 부서장이 함께 모인 가운데 '2025년도 국가 투자예산 확보 및 신규시책 발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영천시는 정부 정책방향과 시 현안사업을 연계한 신규·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국비 건의사업 및 신규시책 발굴 신성장 동력 마련 및 복지향상

보고된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영천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민생안정과 신성장 산업 발굴에 중점을 둔 사업들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영천시는 중앙부처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건의하고, 국가 재정정책 분석,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역량 강화, 각종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예산편성 순기에 앞선 체계적 대응에 나서 시정 현안 해결과 신성장 동력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국비 건의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새롭게 추진할 시책까지 세심히 논의되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시 공직자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국비 확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도·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달라"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영주의 봄을 시민들과 함께'... 시민 건강전기대회 개최

23일 '당일 현장 접수
서천 둔치서 7km 진행



'2024 영주시민 건강전기대회'가 오는 23일 서천 둔치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봄을 맞아 겨우내 위축된 신체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민 화합과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영주시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걷기 대회는 영주교 아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출발해 제1가흥교, 제2가흥교를 거쳐 한정교

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7km코스로 진행된다.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와 코스

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된다.

대회는 별도의 사전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인당 참가비 2천 원만 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 경품권, 간식(빵, 생수)이 제공된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시민들이 걷기를 통해 소중히 분들과 봄의 정취를 느끼며 활기찬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바른 걷기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하는 봉화군

봉화군은 오는 21일까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협업해 농특산물 특별판매 행사에 참여할 개별 농가 및 단체를 모집한다.

농특산물 특별판매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방문자센터 입구에서 봄자페스티벌(9월 12~22일)과 가든하이킹(10월 3~5일) 행사 때 진행된다.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목원 담당자 이메일(rmfma_3@koagi.or.kr)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연간 최대 21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관광객에게 봉화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하는 판매 행사를 통해 봉화군을 방문하는 여러 관광객들에게 봉화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봉화군 농가들의 자부심 고취와 소득향상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이상기후 대비 긴급과수냉해방제비 지원

의성군은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업비 8.2억원으로 긴급과수냉해방제비 지원에 나섰다

또한 재해대응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 3개사업 29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대응을 위해 8.2억원을 투입하여 긴급과수냉해방제비 지원에 나섰다.

또한 재해대응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 3개사업 29억원을 편성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냉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과수 발아전(3월 초~중순) 요소(0.3%)·붕소

대가야축제 맛이 관광지 새단장 실시

고령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간 진행되는 대가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대가야생태촌, 문화누리 주변 등 주요 관광지 새단장을 위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관광지 내 곳곳에 조성된 화단에 톨립, 팬지, 비올라 등 춘계 계절조화를 식재하여 방문객들에게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꽃샘추위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일에는 테마관광지의 개울, 연못에 시설사업소 근로자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 묵은 찌꺼기를 내려보내며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로 탈바꿈하는 등 봄맞이 새단장에



대한 기대도 부풀게 했다. 이번 축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고령군민뿐만 아니라 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관광도시 고령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배영백 기자

영천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스타트!

NH농협 영천시지부, 대구은행 영천 영업부, 한승훈 위원장 성금 기탁

영천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시민체감형 시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19일 성금 모금을 위한 첫걸음으로 NH농협 영천시지부(지부장 박성용), 대구은행 영천영업부(영업부장 박상준), 한승훈(영천시지역사회회장

협의회 위원장)이 영천시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저출생은 국가의 위기이고, 지방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로,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영천시민의 저력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경북공동모금회와 함께 올해 1월까지 진행되며 모금된 성금은 저출생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대표위원 이상근 의원 등 5명
4월 4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

영주시의회는 지난 제2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9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산·평은·문수·장수·휴천1동)]과 김철진 교수, 강상호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한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오는 6월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의결할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성주군, 저출생과 전쟁, 경북의 힘으로

성주군은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경북 저출생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을 추진한다.

경북 저출생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은 2024년 11월까지 진행된다.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군민 등 성금 모금을 희망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출생극복 성금모금' 계좌로 입금하게

나, 군청 주민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주복지플랫폼(sj-welfare.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여계좌는 농협 705-01-190814나 대구은행 505-10-116204-8다. 예금주는 경북공동모금회다.

"성주복지플랫폼"은 군민들의 복지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모두가 쉽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성주형 복지 정보 사이트'로, '경북 저출생극복 성금모금 캠페인' 관련 정보도 성주복지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재훈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 P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고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